

## 팀워크 리더십

-아세르 인트레이터



여러 해 전, 제가 이스라엘, 교회, 메시아닉 남은 자들과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에 주목했을 때, 저는 그 누구도 홀로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강하거나 현명하거나, 의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에 참여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팀으로 함께 일해야 할 것입니다. 팀워크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팀으로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팀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연약함과 다른 견해, 자존심, 두려움, 고집, 좌절 등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짐"과 "쓰레기"와 함께 옵니다.

한 번은 스태프들에게 어린 아이가 가지고 노는 조각그림 퍼즐의 조각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것들을 한 데 맞추려면 모두가 자신의 조각들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조각조각 흩어진 조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서로 연결되었을 때 그림이 보였습니다.

각각의 조각은 안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밖으로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부분을 우리의 연약함 혹은 필요라고 해석했고, 밖으로 나온 부분은 우리의 재능 혹은 강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부분-우리의 연약함-은 조각들이 함께 들어맞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열쇠는 각 사람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함께 끌어 모으도록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의 강점 때문에 우리를 서로 밀어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리바이브 이스라엘과 티쿰, 아하발 예슈아, 튀에렐 예슈아에서 최고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각 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종종 제가 무슨 기여를 하고 있나 확신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각 팀은 각자 바른 곳에 배치된, 은사 있고 재능이 있고 동기 부여가 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바르게 해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팀워크와 공동의 "주인의식"의 분위기가 생기게 한 것입니다. 이 각각의 그룹들 안에 상호작용과 팀 안에서의 "주고 받음"이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어느 것도 단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의 팀워크 목표를 간단한 세 단계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1. 너의 성공
2. 우리의 단란함
3. 세대 간의 전달

첫 번째 우선순위는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네가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나의 할 일을 한 것이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팀의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란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양보는 연합의 대가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는 훈련과 이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목표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기에는, 그리고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기에는

너무 큰 것입니다. 역할과 지위의 이양은 양방향으로 갑니다: 연장자들에 대해서는 "위와 밖으로",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안으로" 입니다.

인계는 한 가족 안에서 아이가 부모가 되고 부모가 조부모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권위는 연장자에게서 젊은 세대로 점차 옮겨가지만, 연장자는 영향력과 존경의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팀워크와 연합적 관계의 원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15:5, 8, 16).

### **기도 요청**

이번 달에는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옴 키푸르 기도는 이제까지 중 최고였습니다. 저희와 아랍 그리스도인들, 중국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는 상당한 돌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의 여러 지체들이 현재 여러 나라에서 단기 사역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이스라엘은 이번 여름 있었던 전쟁의 여파에서 회복 중이며 전쟁에 따른 재정적, 외교적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에 크게 감사 드립니다.

### **옴 키푸르 기도회**

-에디 산토로



230 명의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외곽 산지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메시아닉 키부츠에 모여 큰 절기인 옴 키푸르를 기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텔 아비브에 위치한 다섯 공동체가 모였는데, 연합과 사랑 안에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땅의 모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왕께 강력한 예배를 드리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많이 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고 계시며,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증거입니다. 아하발 예슈아 공동체는 로쉬 하샤나(나팔절)가 전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길을 준비하는 요한계시록의 “대 환란의 일곱 나팔”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에 예슈아의 재림을 알릴 “큰 나팔 소리” (고전 15:52, 살전 4:16, 마 24:31)가 옴 키푸르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마지막 큰 나팔 소리일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24 시간 동안 금식하며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그 작은 키부츠 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모임이 끝을 향해가면서 저희는 컨퍼런스의 끝에 부는 힘찬 마지막 나팔이 그 날 예슈아를 다시 오시게 하지는 않겠지만 약속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일부가 풀어지게 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 때 쇼파르를 부는 사람들이 회중 앞에 모였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온 회중은 연장된 예배 시간으로 흠어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위에 내렸고 저희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 것을 보기 위해

함께 계속하여 수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강건케 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주어졌다고 확신합니다.

**금년 욥 키푸르의 24 시간은 정말로 전략적인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저희의 부르심 가운데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전투도 많고 저항도 크지만, 새롭게 격려 받아 앞으로 있을 새로운 돌파를 기대합니다.**